

# 함께 풀다보니 교리가 머리에 '쏙쏙'

## 조계사 교리경진대회 '범종을 울려라'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는 국화축제 '시월 국화는 시월에 핀다터라'의 하나로 교리경진대회 '범종을 울려라'를 10월 22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실시했다. 개인전 60여명과 단체전 30여팀이 참가한 행사에는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조계사 신도들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진지하게 대회에 임하는 교리경진대회 참가자들



단체전에서 우수한 조계사 청년회가 범종을 울리고 있다.

조계사 행정국장 성진 스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있던 다른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사전에 준비한 문제들이 바닥난 것이다. 결승자를 가리기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출했지만 실력이 출중한 두 팀의 대결은 융호상박이었다. 대회 내내 중전에 떠 있던 가을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어느 덧 서늘한 바람까지 불고 있었다.

그러나 조계사 앞마당에 마련된 교리경진대회 무대에 앉은 조계사 청년회와 조계사 수행상담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문제를 출제할 스님을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조계사 청년회는 개인전 우승자 무구 김정희 거사와 개인전 2위 성운심 이수민 보살이 참여해 시작부터 주변의 기대를 모았다.

단체전 최종 결승에 오른 두 팀은 벌써 15문제 이상을 경합 중이었다. 조계사 스님들은 승부를 가리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계속 출제했지만 두 팀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결승전 8번 문제에서 성진 스님은 "37조 도품 중 4여의쪽을 모두 쓰라"고 지시했다. 두 팀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조계사 청년회가 먼저 정답판을 들었다. 두 팀의 팽팽한 결승을 지켜보던 신도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조계사 청년회가 정답판에 쓴 답은 "축하합니다"였다. 패배를 인정하고 조계사 수행상담실의 우승을 미리 축하한 것이었

다. 이제 수행상담실이 4여의쪽을 모두 쓰면 제1회 조계사 교리경진대회 첫 우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수행상담실은 신중을 기해 답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최종 정답판을 들었다. 신도들은 스님들의 입만을 바라보며 판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성진 스님의 한 마디는 단체전 결승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스님은 "수행상담실, 왜 정답을 썼다 지워. 그 답 틀렸어"라고 말했고, 결국 두 팀의 경합은 계속됐다. 고비를 넘기자 조계사 청년회는 다시 힘을 냈고, 두 팀의 공방은 결승전 15번 문제까지 이어졌다. 스님들은 두 팀의 허를 찌르기 위해 "조계사 국장 스님들의 범명은?", "조계사 대웅전의 평수는?"과 같은 이색적인 문제도 제출했지만 승부는 끝이 날 줄을 몰랐다.

결승전 16번 문제에서 성진 스님은 마지막이기를 바라다며 "조계사의 4물을 치는 순서를 쓰시오"라고 문제를 제시했다. 4물을 치는 순서는 사찰마다 차이가 있는데 조계사의 순서만 정답으로 인정되는 문제

였다. 양측은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고, 잠시 후 두 팀은 정답판을 들어올렸다. 조계사 청년회가 제출한 답안은 '범고-목어-운판-범종'이었다. 반면 수행상담실은 '범고-범종-목어-운판' 순서로 적었다. 마지막까지 순서를 고민하던 수행상담실은 자신이 없는 표정이었다. 정답을 알고 있는 조계사 신도들은 승부가 결정됐으며 숨를 내뿜었다.

정답판을 살피던 스님들은 조계사 청년회의 답안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긴 시간 이어진 '제1회 조계사 교리 경진대회' 단체전의 우승자가 결정됐다. 조계사 청년회는 환호하며 우승을 자축했고, 끝까지 응원을 해준 조계사 신도들과 함께 경합을 벌인 수행상담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단체전에는 조계사 각 단체 및 지역별 33개 팀이 참가했다. 혼자서 정답을 고민해야 하는 개인전과 달리 단체전은 도반들끼리 논의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개인전과 달리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우승을 향한 승부욕도 높아 일부 팀은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정답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계사 행정국장 성진 스님은 "부처님 법은 항상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한다. 승부는 큰 의미가 없다. 신도들이 교리 공부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맞춤법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단체전에 앞서 열린 개인전에는 60여명의 조계사 신도들이 참가했다. 1.2번 문제가 지는 오답 없이 전원 통과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3번 '계승'을 묻는 질문에 첫 오답자가 나오면서 승부가 서서히 달아올랐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모두 쓰라는 문제에서 참가자들은 문제가 어렵다며 탄성을 질렀다. 스님들은 다른 문제보다 조금 더 시간을 주며 차분하게 답을 쓸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10대 제자를 미처 채우지 못한 참가자들이 탈락하면서 남아 있는 참가자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참가자들의 실력이 월등하자 스님들은 맞춤법 하나,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정답으로 인정했다.

동안거를 묻는 질문에 안거라고 답해서 탈락한 한 참가자는 '아이고, 억울해'라고 외치며 대회를 벗어났다. 라후라 존자를 묻는 질문에 '라후라 존자'라고 썼던 김미자 보살은 외래어에 대한 발음 문제임을 인정받아 정답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몇 문제 뒤 안타깝게 탈락하고 말았다.

결승전에는 조계사 청년회의 무구 김정희 거사와 성운심 이수민 보살이 나왔다. 조계사 청년회원간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였다. 유전문을 묻는 질문에 이수민 보살이 정답을 놓치는 사이 김정희 거사가 정답을 맞춰 최종 우승의 기쁨을 안았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교리 공부를 위한 좋은 자극제"

### 개인전에서 우수한 무구 김정희 거사

"전에는 교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근 좀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가 다시 교리 공부에 매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1회 조계사 교리 경진대회 '범종을 울려라'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조계사 청년회 무구 김정희 거사(사진)는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김 거사는 조계사 청년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한다.

김정희 거사는 "이번 대회를 위해 일



주일 정도 준비를 했다. 다시 책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다보니 과거에 배웠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교리 공부에 대한 좋은 자극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마음가짐으로 대회를 준비한 탓인지 결승전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문제를 풀다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번 대회가 저를 비롯한 많은 불자들의 교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기범 기자

## 어른들 틈에서도 차분히 실력 발휘

### 초등법회 참가자 최보문 양

올해 13살인 최보문 양(사진)은 교리 경진대회 개인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나이가 어린 이유도 있지만, 어른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이다. 최종 5인에 포함되면서 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졌겠지만, 보문 양은 아쉽게 4위에 그쳤다.

"말이 아니고, 약간 좀 아쉬워요. 3위에만 들었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예요."

최보문 양은 다소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쾌활하다는 듯 웃어보였



다. 결과가 짐작하지 않는 썩썩한 불제자의 모습이 엿보이는 듯했다. 최보문 양은 교리 경진대회 참가 경험이 많지는 않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8월 28일 실시한 '제3회 불교교리경시대회'에 처음 참가한 뒤, 이번 대회가 두 번째다. 보문 양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기범 기자

## 매년 자체 교리경시대회 열고 정진

### 단체전 우승 조계사 청년회

조계사 청년회(사진)는 매년 자체적으로 교리경진대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대회도 조계사가 청년회원들의 깊은 불심에 감탄해 전체 신도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확장한 것이다. 매년 자체 대회를 개최할 만큼 조계사 청년회는 교리 공부에 열심이다.

조계사 청년회 고경 최석균 거사는 "2등에 올랐지만 수행상담실의 실력이 대단했다. 교리 공부 의욕을 고취시키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계사 청년회는 자체적으로 신입 법우에 대한 교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



다. 또한 교리 공부가 청년회 활동에만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 거사는 "수행과 함께 교리도 같이 익혀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불자들이 교리 공부에 대한 좋은 자극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고 함께 배출되기때문에 몸속 (체온) 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 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특별합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원출판사 | 감성책 지음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옻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해마다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